

KB '3兆' 클럽 가입·'1위' 탈환... "역사를 다시 썼다"

윤종규 표 아닌 체질개선 결과
여신 성장·금리상승 발판 삼아
조용병과 리딩뱅크 경쟁 치열

윤종규 회장이 이끄는 KB금융이 순이익 3조 클럽에 가입했다. 신한금융주에 뺏겼던 리딩금융그룹 자리도 9년 만에 되찾았다. 윤 회장 스스로 '윤종규 표는 중요하지 않다. KB표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색을 조직에 입히기보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체질을 바꾸는데 공을 들인 결과다.

비은행부문으로 영토를 넓혀 온 윤종규 회장과 '원(One) 신한' 아래 M&A와 자산운용 강화를 내세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맞대결이 올해 최대 볼거리가 됐다.

8일 KB금융은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54.5% 증가한 3조 311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7조 71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4% 증가했고, 순수수료이익도 전년보다 29.3% 늘어난 2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수수료이익 증가는 통합 KB증권이 출범하면서 증권업 수입 수수료 증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18%, 총자산수익률(ROA)은 0.82%였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6조 8000억원이었다.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이 여신 성장과 시장금리 상승을 발판삼아 수익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성을 회복한 것이 KB금융 실적을 견인한 주요 동력이었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 175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25.6%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증가를 통해 전년보다 13bp(1bp=0.01%포인트) 오른 1.71%를 보였다. 비은행 계열사로 이익 기반을 확대한 것도 지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KB증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717억원, KB손해보험은 3303억원, KB국민카드 2968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KB금융은 리딩금융그룹 지위를 9년 만에 다시 되찾게 됐다. 신한금융이 2011년 처음으로 3조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금융사 중 순이익 3조원을 넘긴 곳은 지금껏 나오지 않았다.



KB국민은행본점.

추가에서는 이미 KB금융이 신한지주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신한금융이 KB금융 주가를 앞섰지만 지난해 1월 26일을 기점으로 판이 바뀌었다. 이후 주가 차이는 더 벌어져 이날 증가 기준으로 KB금융 주가는 6만 1400원을 기록, 신한금융(4만 9600원)에 앞서고 있다.

시가총액 면에서도 KB금융(25조 6720억원)이 근소한 차이로 신한금융(23조 5203억원)을 앞선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KB가 그간 과감한 M&A 전략으로 체질을 빠르게 바꾼 반면, 신한은 반 박자 뒤졌다는 평가다. KB는 2014년 KB캐피탈, 지난 2016년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반면 신한은 2013년 예한별저축은행(현 신한

저축은행) 인수를 마지막으로 지난해까지 활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각각 은행·카드업계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은 아직 같 길이 멀다.

하지만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2020년까지 아시아 1등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해외 금융사 M&A·투자은행(IB) 역량 강화를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어 2018년 리딩뱅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한금융그룹의 지난해 실적도 나쁜 것은 아니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은 1조 7110억원이다. 전년 보다 11.8% 줄어 들었다. 영업을 못해서가 아니다. 4분기 희망퇴직

금 1800억원, 딜라이브 유가증권 손실 반영분 1500억원, 대우조선 및 금호타이어 등 대손충당금 적립 1200억원 등 일회성 비용 4500억원가량이 반영된 결과다. 비금융부문도 KB금융 못지 않다.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순이익은 1조 3710억원으로 전년보다 31.1% 증가했다. 신한카드 순이익은 9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고, 신한금융투자 순이익은 2119억원으로 전년보다 83.6% 늘었다.

KB금융그룹의 수성이나, 신한금융그룹의 탈환이나. 윤 회장과 조 회장의 신년사가 대결 구도를 짐작하게 한다.

윤 회장은 "고객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바꾸겠다. 또 동남아 현지에 특화된 금융모델로 시장 지위를 확대하고, 기회가 된다면 선진국 시장을 향한 '볼드 무브(과감한 조치)' 전략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도 신년사에서 그룹사의 역량을 결집하는 '원(One) 신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GIB(글로벌&그룹 투자은행) 부문의 판교 알파돔시티 인수를 원 신한 전략의 성공 사례로 언급했다. 지주·은행·금융·생명 겸직의 그룹 투자사업부(GID)도 만들어 그룹 차원의 고유자산운용 전략도 강화했다.

핵심 계열사인 두 지주의 은행장들은 신년사에서 2020년 전 사업부 1위(허인 국민은행장)와 조격차의 리딩뱅크로의 도약(위성호 신한은행장)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우리은행, 순이익 1.5兆 달성

전년비 19.9% ↑... 2012년 이후 최대
"글로벌영업 등 지속성장 기반 확보"

우리은행은 8일 지난해 순이익(연결 기준)이 전년(1조 2613억원) 대비 19.9% 늘어난 1조 512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1조 6333억원)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우리은행만 놓고 보면 순이익은 1조 3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 증가했다. 우리은행 여신은 222조 1180억원으로

2016년보다는 2.5% 늘었다.

가계 신용대출이 21조 9940억원으로 17.9% 늘었고 개인사업자(SOHO) 대출이 37조 5140억원으로 15.6% 증가했다.

이 덕분에 은행 이자이익은 4조 7231억원으로 3.5% 늘었다.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1.47%로 전년 말과 비교해 0.06%포인트 올랐다.

비이자이익은 1조 1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 늘었다. 외환분야와 자산관리 상품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1조 6110억원으로 9.7% 줄었고, 고정이하여신비율

도 지난해 말 기준 0.83%로 전년 말(0.98%) 대비 0.15%포인트 떨어졌다. 연체율은 0.34%로 0.12%포인트 떨어졌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추진해 온 체질개선 노력으로 수익성이 한 단계 올라갔다"며 "올해는 안정적 수익창출과 글로벌 영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서민금융 증대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열사인 우리카드는 1012억원, 우리종합금융은 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올렸다.

/채신화기자 csh9101@



신한금융그룹은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타워 신한퓨처스랩에서 지주, 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 데이터시스템 등 전 그룹사가 참여하는 신한퓨처스랩 4기 웰컴파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 중 신한지주 우영웅 부사장과 신한퓨처스랩 4기 기업 대표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알리버 2017 유나희 대표, 빅토리아프로덕션 한현정(Victoria Han) 대표, 신한금융지주 우영웅 부사장, 짐즈에이 이성용 대표, 비주얼캡트 박재승 대표.)

스타트업 양성 '신한퓨처스랩' 4기 스타트

신한금융그룹, 전 그룹사 참여

신한금융그룹은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타워 신한퓨처스랩에서 지주, 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 데이터시스템 등 전 그룹사가 참여하는 '신한퓨처스랩 4기 웰컴파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한퓨처스랩 4기 모집에는 디지털금융 신기술과 생활 영역의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21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 중 '짐즈에이'는 공항과 호텔 사이에서 여행객 캐리어를 운송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앞으로 신한금융과의 협업을 통해 물류 서비스를 넘어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객 접점 데이터를 활용한 더 나은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종합 여행

서비스 플랫폼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하는 '비주얼캡트'는 사용자의 콘텐츠 몰입도, 사용자환경(UX/UI) 개선사항, 마케팅, 결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서비스에서 필요한 사용자 인증 및 결제 등에 신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4기에는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 3개사도 포함됐다.

이들 21개 기업은 향후 신한금융과의 기술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게 되며 입주와 동시에 퓨처스랩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또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그룹사 뿐만 아니라 외부 제휴·파트너 기관과의 공동투자도 제공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생보사 부담 가중 '新보험제도' 연착륙 최우선"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8일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 등 생보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의 연착륙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협회장은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장포화, 성장둔화, 건전성 기준 강화 등으로 생보사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보험시장에는 오는 2021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원가 평가 대비 보험사 부채가 급증하여 생보사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각 사는 이에 후순위채 발행 등 정책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 회장은 "IFRS17 적용과 관련해 생보사들의 부담 완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보험 IFRS 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 평가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계의 실

무적 어려움을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 하겠다"며 "국제적 건전성 규제 적용 방법과 유예 시기 등을 파악해 국내에서도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업계 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신 협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실행돼 봐야 (실손보험료)인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보험료)인하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선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35sea@